지역개발연구 제53권 제1호, 2021년 4월, pp.25-51
The Studies in Regional Development, Vol.53, No.1, 2021
http://dx.doi.org/10.35526/srd.2021.53.1.002

밧데이, 섬 속의 '섬'
- 도미니카공화국 내 아이티 이주노동자들의 인종적 차별에 기인한 다층적 불평등 양상 고찰과 해결국면 모색* -

이 태 혁**

본고는 도미니카공화국 내 아이티 이주노동자들의 인종적 차별성에 기인한 다층적 불평등성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사탕수수 농장의 아이티 이주노동자 집단 거주지인 가칭 '밧데이(Batey)'에 투영된 이주노동자의 인권적 불평등성을 규명하며 작금의 상황을 고발한다. 시대적으로 10년 단위의 두 번의 역사적 주요 분기점이 있다. 1920년대 도미니카공화국의 미 군정시기와 결부되며 사탕수수 농장의 아이티 이주노동자 유입으로 기존의 노동력의 변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1930년대는 트루히요 독재 정부의 등장 속 아이티 이주노동자의 비자발적 밧데이 거주 및 인권적 차별에 기인한 다층적 불평등 양상이 심화된 시기다. 아이티인들의 '저렴한' 노동력은 도미니카공화국 발전의 기저가 된 사탕수수 농장의 주요 노동력이었다. 하지만, '필요악'이다. 이는 인구 구성과 문화적인측면에서 아이티인들을 위협과 혐오의 대상으로 치부했기 때문이다. 특히 트루히요 정부는 두 가지 정치적 프레임으로 독재를 구가했다. 미국의 자본을 겨냥한 신제국주의 프레임과 "아이티 위협(threat)"을 국론화시키며 반아티아주의의 이념적 접근이다. 미국 그리고 아이티 이주자를 지렛대(leverage) 또는 희생양 삼아 트루히요 정권의 정당성 창출 및 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루히요 본인의 사욕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다. 포스트 트루히요 정권들도 여전히 반아이티주의를 사회 주요기제로 사용했다. 아이티인들을 위시로 하는 이주자이슈는 국내 화제 거리를 매몰시키기 위한 정쟁(political football)의 한 방편으로 치부 또는 국내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설명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탕수수 산업이 사양화됨에도 여전히 밧데이에서 일상을 구가하는 아이티 이주노동자들은 100년 전과 동일하게 작금도 인권적 취약성에 극명하게 노출되어 있다. 국제사회의 다층적 행위자의 연대를 통한 해결국면의 모색이 필요하다.

주제어 : 밧데이, 아이티 이주노동자, 인종적 차별, 인권, 연대와 개발협력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2081030)
**부산외대 중남미 지역원 HK연구교수 Tel: 051-509-6666 E-mail: gwheok@bufs.ac.kr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한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갈 수 없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한다. 하지만 여성들은 병원 검진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림자에 숨어서 살아야만 한다.

《뉴욕타임스》,2005.11.20

Ⅰ. 들어가며

"설탕의 '단맛'은 [....] 한이 서린 '쓴맛'에서 나왔다"(Mintz, 1995). 이는 도미니카 공화국 내 '사탕수수' 농장 아이티 이주자들의 극단적 삶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도미니카 공화국 내 밧데이(Batey)라 불리는 사탕수수 대농장 커뮤니티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아이티 이주노동자들은 '현대판 노예제도' 굴레에 '구속'되어 있다(Baud 1992;Matibag 2011). 자유,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를 포함하는 인권 시대를 지향하는 작금의 국제 규범과 보편적 가치가 완연히 무너진 현장이다. 특히 2000년 UN은 밧데이 내 인권 문제 등을 포함해 일련의 불평등성을 글로벌 10대 난제로 규정한 바 있다. 그렇다면 밧데이에 거주하는 아이티 이주자들은 왜 인권이 남용되었는가? 도미니카공화국 내 아이티 이주민, 특히 밧데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왜 이와 같은 문제점이 현재화되었는가? 인권적 취약성이 내재된 경제적 그리고 정치성의 불평등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이와 같은 다층적 불평등성은 어떻게 전개 및 지속되었는가? 해결 방법 및 극복 국면과 같은 전환적 계기는 없는가?

도미니카공화국 내 아이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적 착취를 포함한 포괄적 불평등성은 '인종성' 프레임에서 기인한다(Baud 1992; Martinez 1999; Sagas 2000; Bernier 2003; 김달관 2005). 인종적 프레임은 만들어진 것이다. 만들어진 인종성의 프레임은 양 국가 특히 도미니카공화국 국가 형성(state-building) 과정 속에 깊이 투영되어 있다 (Samuel Martinez 1999:57; Sagas 2000). 본고는 프랑스 법학자 바작(Karel Vasak)의 3단계 인권론 접근을 라틴아메리카적 관점으로 재해석하며 밧데이 아이티 이주노동자에게 투영함으로써 작금의 인권 실체를 분석 및 고발하고자 한다. 본고는 인종적 편견에 기댄 노예제 관성은 사탕수수 작물의 특수성 그리고 독재 정권 출현이 주요 기제로 작동한 결과물이라고 분석하며, 사회경제적 배타성에 근거한 반아이티주의(Anti-Haitianism)의 재생산화가

도미니카공화국에 근본적으로 뿌리내렸다고 주장한다.

본고는 밧데이에 투영된 이주노동자의 인권적 불평등성을 규명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전개한다. 첫째, 국내외 선행 연구를 검토하며 본 연구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공간'을 모색함과 동시에 학문적 필요성을 피력한다. 둘째, 본 연구는 밧데이라는 미시적 공간에 투영된 아이티 이주노동자의 인권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불평등성을 분석하는 만큼 밧데이에 담긴 도미니카공화국의 사탕수수 대농장과 결부된 역사성을 고찰한다. 특히, '크로노스'적 시간의 흐름 가운데 독재 정권의 등장이라는 '카이로스'적 의미를 부여하며 현재적 밧데이를 위시한 도미니카공화국 내 일상화된 반아이티주의 인종적 프레임 형성의 모멘텀을 확인한다. 셋째, 독재 정권 이후 일련의 정책을 돌아보며 반아이티주의의 '지속성'을 인권적 맥락에서 분석하며 고찰한다. 넷째, 본 연구의 결론으로 밧데이 사탕수수 대농장 집단 거주지에 기거하는 아이티 이주노동자의 인권 등 점철된 다층적인 불평등의 해결국면을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모색하며 '외부적 충격'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특히 본 마지막 섹션에서는 국제 사회의 다층적 행위자를 통한 국제개발협력 차원의 해결 방안을 고민한다.

Ⅱ. 선행연구의 검토: '밧데이' 연구의 학문적 가치와 의미 (특수성)

라틴아메리카 역내·외 이주와 이민과 관련된 연구는 국내·외 다수 있다 (조돈문·임상래·이내영 2005; 임상래 2005) 특히, 국내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인권과 관련하여 "문화적 저항과 새로운 연대-민주화 이후 라틴아메리카 인권" 제하 연구 프로젝트로 학술논문이 28편이 발행되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적 특성 가운데 인권적 프레임을 통해 분석한 "저항, 새로운 연대, 다문화 주의" 제하 단행본 연구총서가 발간되었다 (임상래 외, 2010). 특히, 임상래(2005, 2006)는 칠레의 페루이민자 그리고 코스타리카의 니카라과 이민자들의 이주특성과 민족적 차별로 인한 인권적 불평등성을 소재로 각각의 사례를 분석했다. 더욱이 갈레아노(Eduardo Galeano)의 "거꾸로 된 세상의 학교"를 통해 세계인권 실태를 라틴아메리카 중심으로 풍자하며 고발한 김은중(2010)의 연구물은 세계화와 정치적 민주화 이후의 라틴아메리카 인권 정치의 실상을 철저히 탈근대적 시각과 대안사회운동의 '칼'로 해부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를 포함한 전지구적 인권의 실상에 대해 "제1세대 인권인 자유권은 지극히 개인적인 세계에 갇혀 제2세대 인권

인 평등권을 억압하고 제3세대 인권인 문화권과 단절되어 있다"는 김은중(2010: 20)의 통찰은 본 연구의 주요 분석틀이다. 더욱이, 우석균(2010)은 이와 같은 바작의 3단계 인권론 접근을 라틴아메리카적 '토양'에 접목시키며 탈근대적 접근으로 하위주체의 범주를 부각시키고 재현의 민주화 가능성을 천착했다(2010: 61). 이러한 관점은 추후 본 연구에서 고찰할 밧데이에 응축된 인권적 불평등성 및 대안적 역동성을 제시하는 데 활용한다.

한편, 국내 라틴아메리카 연구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여성을 대상으로 젠더접근을 통한 인권적 상황 고찰의 연구가 다수 있다(강경희 2001; 이순주 2010; 박윤주 2011; 정상희 2020). 더욱이 라틴아메리카 인종차별에 대한 역사구조적 접근으로 "인종과 불평등성" 제하 연구총서가 발행되는 등 인종과 불평등성에 대한 연구가 재조명 된다(김기현; 2005, 조영현·김영철·김희순·차경미 2020). 하지만 국내 라틴아메리카 지역 연구 가운데 카리브 연구가 다소 미흡하다.[1] 특히 아이티와 도미니카공화국 간의 정치경제적 접근의 연구가 미비한 가운데 김달관(2005)은 아이티와 도미니카공화국 간의 '만들어진' 인종적 구별의 정치화와 경제적 불균형으로 빚어진 양 국가 간 대립 국면을 연구했다. 상대적으로 빈약한 국내 카리브연구 특히 밧데이 사탕수수 농장과 결부된 도미니카공화국-아이티 간 연구에 비해 국외는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Hoetink 1970; Baud 1992; Martinez 1997;1999;2003; Wucker 1999; Sagas 2000; Bernier 2003; Ferguson 2003; Cohen 2006; Matibag and Matibag 2011; Nunes 2016; McWade eds. 2018).

특히 '도미니카공화국의 인종과 정치'라는 저서에서 사가스(Sagas 2000)[2]는 트루히요(Rafael Trujillo)를 위시로 하는 도미니카공화국의 독재자 그리고 일련의 정치인들이 자신들 집권의 지속성을 향유하고자 인종, 특히 반-아이티주의 이념을 통해 지지층을 규합하며 "우리"와 "그들"이라는 프레임으로 이분화 했다.[3][4] 바우드(Baud, 2003)는 다른 제3세계권 이주노동자 실태와 달리 도미니카공화국 내 아이티 이주노동자들이 시간이 흘러감에도 여전히 '무자유(unfree)'의

1) 아이티관련 연구가 국내 일부 있음: 심재중(2004) 흑인정체성 연구; 이태혁(2019) 아이티 정치경제적 실태와 반정부시위 연구임.

2) Sagas, Ernesto(2000). *Race and Politics in the Dominican Republic*. Florida: University of Florida.

3) 아이티-도미니카공화국 간의 관계 연구, 특히 도미니카공화국 내 아이티인들의 실상을 분석 하는 연구에서는 인종적 프레임(즉 인종성)은 문제인식의 자양분이자 기저임.

4) Matibag and Matibag(2011). Sovereignty and Social Justice: The "Haitian Problem" in the Dominican Republic. Caribbean Quarterly 57 참고.

속박에서 노동의 유지 및 지속은 노동의 이원화 시스템에서 그 설명력을 찾았다. 인종적 차별이라는 상수 가운데 사탕수수 농장에서의 숙련 노동자와 미숙련 노동자간 상호 교류를 엄밀히 구분함으로 노동력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인식과 소통을 차단함에 따른 집단적 움직임을 사전에 방지했다는 것이다(Baud 2003: 301). 워커(Michele Wucker, 1999)는 '왜 이스파뇰라 섬을 두고 수탉들이 싸우는가' 라는 문헌[5]에서 수탉이 싸워야 할 운명을 타고난 투계적 이미지를 이스파뇰라(Hispaniola) 섬을 양분하고 있는 아이티와 도미니카공화국 간에 투영하며 양국 간 관계의 치열한 역사를 서술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굴레 속에서 극명한 피해대상은 도미니카공화국 내 아이티 이주민임을 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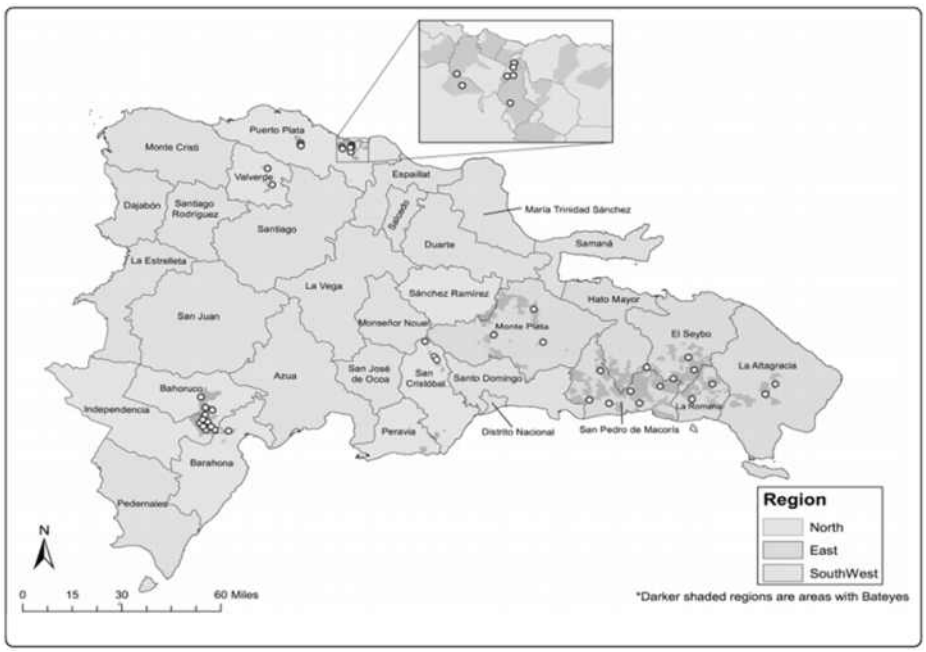
한편, 코헨(Cohen, 2006)은 밧데이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티 이주노동자 보건문제 특히 AIDS 감염비율이 도미니카공화국내에서 가장 높으며 동시에 이 지역에 항 HIV 의약품 등 의료 혜택이 전무하다고 고발했다. 맥웨이드(McWade, 2018)는 식품섭취의 다양성(dietary diversity)-삭제, 즉 식량안보와 보건 및 위생이 취약한 밧데이 지역을 실증적 비교연구로 진행했다. 멕웨이드(McWade, 2018)를 위시로 한 연구 집단은 현지 설문조사를 통한 계량분석을 통해 밧데이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티 이주노동자들의 생활 실태를 FAO(세계식량기구) 기준 연구 및 조사했다. 밧데이 거주 아이티 이주노동자 인권 유린의 실상을 가톨릭 종교지도자의 아이티 현지인 인권교육 그리고 해외 NGO단체 간 연대하여 저항을 담은 연구물도 있다 (Nunes 2016). 이와 같이 밧데이와 연관된 일련의 연구가 지속되고 있고 그 기저에는 인권적 취약성과 결부된 문제다.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아이티 이주노동자, 특히 밧데이가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어떻게 밧데이가 형성되었는가?

Ⅲ. 밧데이에 투영된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 이주노동자의 역사성

이스파뇰라 섬 속의 또 '다른 섬'이 밧데이다. 사탕수수 작물로 마치 섬처럼 실

5) Wucker, Michele(1999). *Why the Cocks Fight: Dominicans, Haitians, and the Struggle for Hispaniola.* New York: Hill and Wang.

질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대농장 경작지에 집단 거주지가 바로 밧데이인 것이다. 사탕수수가 일종의 '창살'과 같은 모습으로 구현되는 공간에 고립되어, 화폐 대신에 경작지 내에서만 통용되는 일종의 바우처로만 생활을 영위하는 밧데이 주민이 바로 아이티 이주노동자다(Baud 2003; Ferguson 2003)[6]. 지난 1920년 이래 현재까지 아이티 이주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기거하고 있다. 다음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밧데이 사탕수수 농장지대는 도미니카공화국 전역에 산재해 있다. 모두 500여 개의 크고 작은 사탕수수 농장이 있다(Ferguson 2003:14).



출처: Hunter M. Keys et.al.(2019). *Perceived Discrimination in bateyes of the Dominican Republic: Results from the Everyday Discrimination Scale and Implications for Public Health Programs*. p. 3.

[그림 Ⅲ-1] 도미니카공화국 내 밧데이 사탕수수 농장지대 분포 및 산재 정도

사탕수수 농장은 아이티 이주노동자들만의 일터, 즉 전유물이 아니었다. 아이티 이주노동자들은 도미니카공화국 사탕수수 농장에 가장 늦게 '도착'했다. 180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6) 아이티 이주노동자 대상 임금 방식, 가칭 vales, fichas 또는 tickets임 (Baud 2003: 313).

1. 자본주의 논리 하 사탕수수 농장의 다양한 '입주민'들: 도미니카공화국 현지인, 코콜로스(Cocolos)[7] 그리고 아이티인

설탕 플랜테이션은 19세기 도미니카공화국 현지 임금노동자들에게 실질적 기회가 되었다(Baud 2003: 308). 1884년 기준 도미니카공화국 내 6,000여 명의 사탕수수 산업 관련 근로자 가운데 외국 출신 인력은 단지 500여 명에 불과했다(ibid). 이때 외부적 요소가 발생한 것이다. 1884년 세계시장의 설탕 가격의 급락으로 노동자 임금 축소가 불가피했고, 이에 따라 현지 노동자들의 근로 거부 행사 등 일련의 반발로 농장주와 노동자 간의 대결이 극심해져 사탕수수 농장은 '혈투장'으로 변했다. 이내 이러한 분쟁이 부질없음을 인지한 현지 노동자들은 각자의 본향으로 돌아갔다(Hoetink 1988, Baud 2009:309에서 재인용). 따라서 자유노동 '실험'은 끝난 것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의 설탕산업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술적 근대화가 '자유가 없는' 저임금 노동자의 공급과의 '만남'이 성사될 때다(Baud 2009:309).

설탕산업이 1890년대 다시금 재활성화될 때, 설탕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기 시작했다. Baud(2009)에 따르면 카리브 해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와 카나리아 섬(Canary Island) 출신의 계약 노동자들은 다소 긍정적 성과를 일궈내지는 못했다. 추후 점차 작은 영국령 서인도제도 섬(West Indian Islands) 출신의 노동자들이 도미니카공화국 사탕수수 산업의 주요 노동력이 되었다(Martinez 1999:63). 코콜로스(Cocolos)라고 불리는 이 섬 출신의 노동자들은 도미니카공화국 사탕수수 산업의 '구세주'가 되었다. 쿠바의 사탕수수 농업의 구세주가 자메이카와 아이티인들이었던 것처럼(Knight 1985; Baud 2003:309 재인용), 매해 5,000여 명의 코콜로스(Cocolos)가 수확기에 맞춰 유입되었으며, 수많은 계절노동자들은 이후 설탕농장 지역에 영주하기도 했다.[8] 개별 출신국에서 계약 노동을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주해 온 해외 이주노동자들이 계약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급료를 받았다. 그들이 대체적으로 교육을 더 많이 받았고, 또한 도미니카공화국에 적응을 더 잘했기 때문이다(Baud 2003:309). 1895년 코

7) 서인도 제도(West Indies Island)의 세인트키츠 네비스(St. Kitt-Nevis), 아길라(Anguilla), 안티구아(Antigua), 몬테세라(Montserrat), 그리고 세인트 마틴(St. Martin) 섬 출신을 코콜로스(Cocolos)라고 명함. 잉글레세스(Ingleses)는 코콜로스(Cocolos) 보다 조금 더 겸양의 표현으로 영국계, 덴마크계, 네덜란드계 또는 프랑스계 후손을 통칭함(Martinez 1999: 64).

8) 일부 도미니카공화국 엘리트들은 웨스트 인디언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인한 외국 노동자와 외국 자본이 사탕수수 산업으로 인해 국가를 양분화 시킨다고 봄. 동시에, 도미니카공화국 노동자들은 웨스트인디언들의 이주를 반대함. 이러한 상황 가운데 1912년 도미니카공화국 의회는 "nonwhite" 이민제약을 강력히 추진하는 법안을 마련했지만, 궁극적으로 사탕수수생산 산업과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무시됨(Baud 2003).

콜로스(Cocolos)들이 유입되면서 형성된 산 페드로 데 마코리스(San Pedro de Macoris) 지역의 주지사가 이와 같은 자발적 노동자들로 인해 도미니카공화국 사탕수수 산업이 번창하고 있음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는 사탕수수 농장의 지주들은 책임감과 기술력이 있는 노동력을 선호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지주와 노동자 간의 '허니문'은 끝났다. 코콜로스(Cocolos) 이주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개선된 근무 환경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코콜로스(Cocolos)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협회와 협력 기관 등을 설립했으며, 추후 노조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고용주와 고용자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사탕수수 농장주들은 서인도 제도(British West Indian)삭제 즉 코콜로스(Cocolos) 노동력을 회피하기 시작하며 이로 인해 대체 노동력이 필요했다(Baud 2003:310). 이 빈 '공간'을 한 섬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 즉 아이티 이주노동자들이 1920년 이래 유입되며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Baud (2003)에 따르면 기존의 12,000명의 코콜로스(Cocolos)와 경쟁을 벌였던 아이티 노동자들이 임금 면에서 더욱 경쟁력이 있었다. 특히, 임금지급 방식의 차이가 있었다. 코콜로스(Cocolos)와 비교해 아이티 사탕수수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방식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Martinez, 1999:66-67, 79). 코코롤스(Cocolos)인들은 관리 감독제였으며 이에 반해 아이티이주노동자들은 개수임금제(piece- rate wages) 체제였다. 백인의 감독하에 코콜로스(Cocolos)인을 조장으로 두는 집단적 노동양식인 갱시스템과 비교하면 개수임금제는 임금노동자가 노동시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실질적 사탕수수 경작정도(무게)에 견주어 임금을 받는 형태다. 관리자 입장에서 본다면, 개수임금은 더욱 효율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각각의 개별 노동자들은 자신이 일한 만큼 임금을 받으며 동시에 노동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감독관들이 수요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덧붙여, 미군정이 아이티와 도미니카공화국을 통치한 것은 아이티 이주노동자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Baud 2003: 310). 1920년에 센트럴 로마나(Central Romana)라는 미국계 설탕회사가 이미 7,500-9,000명의 아이티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기도 했다. 특히 1925년까지 도미니카공화국 내 모두 21개의 사탕수수 정제공장 가운데 11개가 미국계 기업농의 소유였으며 생산물 대비 98%가 미국으로 전량 수출되었다(Ferguson 2003:10). 미국의 수요 대비 공급량 산출을 충족시키고자 사탕수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증가된 노동력이 필요했다. 따라서 1920년 이래 아이티 이주노동자들이 도미니카공화국 사탕수수 산업에 주요 노동력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Baud 2003: 310). 즉 아이티 이주자들이 상

대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로 시장 경쟁력이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외부적 요소가 1920년대 등장하게 된다. 바로 미국이다.

2. 미군 점령, 국가 체제 형성 그리고 아이티 이주노동자

미군이 이스파뇰라(Hispanola) 섬에 '등장'했다. 미군정이 아이티와 도미니카공화국을 각각 직접 통치함으로써 노동자 특히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일련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했다(Martinez 1999:67). 다시 말해 미군이 아이티(1915-1934) 그리고 도미니카공화국 (1916-1924)을 통치하는 기간 동안 해외 이주노동자 고용과 재배치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강화 및 확대되었다. 양국 중앙정부가 재정개혁을 단행했고 특히 미군정하에서 국립경찰이 발족됨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게 된 것이다(Martinez 1999:68). 미군정 시기 동안 미국 자본하의 사탕수수 농장과 관련된 이권, 특히 이주노동자의 활용과 처우에 대해서 미국계 기업이 각종 특혜를 누렸다. 미군정 시기 제도화된 각종 세제 정책 등 궁극적으로 국가의 재정 상태가 개선되었으며 아울러 중앙정부 휘하의 국립경찰이 창설 및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 권력이 집중되었다. 마르티네스(Martinez 1999:69)가 피력한 것처럼 이전에 미국계 또는 개인 기업농(부르주아) 사탕수수 대농장의 세수에 기대던 중앙정부가 결과적으로 세제 개혁과 공권력 창출 및 확산으로 '온전한' 독립성을 창출하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괴물'이 등장하는 토양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괴물이 아이티 이주노동자의 인권적 침탈, 그 지속된 역사성의 한 변수가 되었다. 바로 트루히요 독재 정부의 탄생 및 유지다. 그리고 이 정권의 유산이 현재까지 확대 재생산되었다. 인권적 요소의 결여가 낳은 정치경제적 다층적 불평성이다.

1) 트루히요 정부의 반미와 아이티 구별 짓기 프레임 그리고 아이티 이주노동의 특성 규정

1937년 출범한 트루히요 정부는 두 가지 프레임으로 정치적 이권을 창출 및 확대 그리고 유지했다. 즉, 트루히요 독재 정부는 두 가지 외부적 요소를 '대입'하여 국가 질서 확립과 위엄 그리고 통합이라는 '산출물'을 양산하고자 했다. 그 하나는 미국(그리고 부르주아 계층)을 신제국주의의 프레임으로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이티와 구별짓기'이다. 트루히요 독재 정부는 미국을 신제국주의의 프레임으로 설정하며 미국계 기업농 소유의 사탕수수 대농장을 개인 사유화했다. 트루히요 독재 정부의 '사망선고'인 1961년 기준 트루히요 소유의 제분공장에서 생산해 내는 도미니카공화국 설탕 생산량이 국내전체 대비

2/3를 차지했다(Martinez 1999:74).

동시에 독재 기간 동안 트루히요 행정부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설탕에 과도한 세금을 가하면서 미국으로의 수출을 막는 등, 외국계 자본이 사탕수수 대농장을 매각하도록 하였다. 더욱이 트루히요는 도미니카공화국 자본가 계층이 가지고 있던 사탕수수 대농장 또한 위협과 협박으로 매각을 종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트루히요 본인 소유의 사탕수수 농장을 확장했던 것이다(ibid.). 트루히요 본인 소유의 사탕수수 농장의 생산성 향상과 그 생산물인 설탕의 '단맛'은 아이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적 착취의 '쓴맛'의 결과물이다. 트루히요는 아이티인들, 특히 도미니카공화국 내 아이티 이주노동자들을 '철저히' 구별했다. "우리 vs 우리가 아닌" 프레임, 타자 존엄의 완연한 상실이다.

2) 아이티 구별 짓기 활용과 유산

이스파뇰라 섬이라는 '도화지' 위에 아이티인들은 아프리카인('흑색'), 그리고 도미니카공화국 사람들은 히스패닉('백색')으로 구별(짓기)되었다. 이와 같은 구별 지음의 정점은 트루히요 독재 정부 시절 개인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아이티인들을 '반아이티주의'프레임을 장착하여 국가정서(이념)화 한 것이다. 기실 도미니카공화국은 對(삭제) 아이티에 대해 역사적 적대감이 잔존했다. 이는 1822년 도미니카공화국에서 공식적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되던 해, 도미니카공화국이 아이티의 침공 및 점령으로 이후 실질적으로 22년간 아이티의 속국으로 '노예'화된 것 때문이다. 루이스(Lewis,1983)와 마르티네스(Martinez,1997:240)에 따르면 도미니카공화국 건국의 의미와 국가 정체성이 "아이티가 아닌 것"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부연하자면, 도미니카공화국의 실존적 의미와 가치 자체가 즉 뿌리인 (삭제) 그 본질이 아이티가 아닌 것, 그 정점이 아프리카가 아닌 것이다. 상대방의 '것'을 부정하며 '다름'을 부각함으로써 본인의 실존적 의미를 찾는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아이티라는 레퍼런스로 자신들의 존재를 인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티인들에 대한 인식이 국민적 정서로 농후한 가운데 도미니카공화국 내 아이티인들이 지속적 불법 이주 등을 통해서 유입되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아이티인들로 인한 일명 '고요한 침략'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아이티와 도미니카공화국 간 국경선상에 거주하는 아이티인들은 도미니카공화국 사람들을 아이티(인)화한다는 우려가 팽배했다(Martinez 1999:70).

아이티인들에 대한 반감이 농후한 가운데 1937년 트루히요가 국경지대에서 인종학살을 자행했다. 트루히요 정권이 '잘라버려'(마치 사탕수수 나무를 자르듯

이), 도미니카공화국 국경 지역 그리고 도미니카공화국 북쪽의 치바오(Cibao) 밸리 지역에 거주하는 아이티인들을 몰살시킨 것이다. 모두 2,500명 이상의 아이티 남성, 여성,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무참히 도륙한 사건이 발생했다(ibid). 크레스웰러(Crassweller, 1996:155-156)의 분석에 따르면, 아이티 이주노동자들이 사탕수수 농장인 밧데이 지역에 산발적으로 거주하는 가운데 유독 국경지대에서 인종 학살이 자행된 것은 트루히요 정권이 의도한 바가 있다. 아이티와의 국경지대의 민간인 살상은 아이티 인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사탕수수 농장 지역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다(Crassweller 1996:155-156, Martinez 1999:70에서 재인용). 다시 말해, 트루히요 정부는 아이티인들을 밧데이로 몰아넣은 것이다.

특히, 국경 지역의 아이티 인종 대량 살상 후, 트루히요 정부는 국경 지역에 대한 도로 정비와 확충 그리고 통신 장비 구축 등 인프라를 개선했다. 더불어 국경지역에 군 병력 확충으로 국경 지역의 불법 아이티 이주민들을 포획하여 강제로 사탕수수 농장지역으로 이송했다(Martinez 1999:73). 즉, 도미니카공화국 국가 수비대(Dominican Guardia Nacional) 신설로 이주노동자들의 사탕수수 농장 이외의 일터로의 움직임에 '적극적' 제약이 가해졌다. 도미니카공화국 공권력은 사탕수수 농장 일대 이외의 불법 아이티 이주자들을 구금하여 사탕수수 경작의 일손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강제 이송하는 일을 했다. 이 시기 이후로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사탕수수 대농장과 더욱 두드러지게(more visibly) 결탁하여 아이티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박탈한 것이다(Martinez 1999:78). 강제 이송된 사탕수수 농장지역은 필경 트루히요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는 농장일 것이다. 미국의 자본을 겨냥한 신제국주의 프레임 그리고 "아이티 위협(threat)"을 국론화한 반아티아주의의 이념적 접근은 미국 그리고 아이티를 지렛대 또는 희생양 삼아 트루히요 정권의 정당성 창출 및 유지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방법은 트루히요 본인의 사욕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도구였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기저에 놓여 있는 '대상'은 아이티 이주노동자다. 특히 사탕수수 대농장에서 일상을 영위하며 '창살'과도 같은 사탕수수 안에서 고립된 또 다른 '섬', 밧데이 집단 거주지에서 일상을 버텨내는 아이티 이주노동자다.

Ⅳ. ‘포스트’ 트루히요, 사탕수수 산업 전개 양상의 변화와 지속된 인권적 취약성

트루히요 독재자 암살(1961) 이후 트루히요가 소유하던 전량의 사탕수수 농장은 국가 소유의 국가설탕위원회(State Sugar Council, CEA)로 귀속되었다. 특히 트루히요 집권 시기 트루히요 본인 소유의 사탕수수 대농장 노동 인력 등의 필요성에 입각해 아이티 독재 정부 부자(Papa Doc와 Baby Doc)[9]와 결탁해 마련한 사탕수수 이주노동자관련 협정은 국가설탕위원회가 위임받음에 따라 아이티 사탕수수 이주노동자는 지속적으로 유입되었다[10](Ferguson 2003:10-11). 이와 같이 트루히요 그리고 트루히요 사후에도 아이티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은 도미니카공화국의 사탕수수 농장 등 그 필요를 채워주었다. 즉 1920년대 미국의 도미니카공화국 군정과 맞물리며 급속히 유입된 아이티 이주노동자의 제1차 물결과 더불어, 반아이티주의의 정치적 슬로건 속에서도 양국의 독재 정부의 이해관계에 기댄 아이티 이주노동자의 제2차 물결이 ‘흘러 넘쳤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티 이주자 물결이 몰려온다. 1986년 아이티 독재자 정권의 몰락과 더불어 기존에 기(삭제) 체결된 협정상의 저임금 아이티 노동자의 유입이 단절됨에 따라 사탕수수 농장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CEA와 사탕수수 사기업들이 아이티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유입시켰다(ibid). 바로 제3차 아이티 이주노동자 물결이었다.

〈표 1〉 아이티 이주노동자의 유입 물결과 동인

아이티 이주노동자 유입 물결	동인	특징
제1차: 1820년 이후	미군정	미국 자본가 등의 노동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아이티 이주노동자 유입됨.
제2차: 1937-1986년	독재 정부	도미니카공화국과 아이티 양국별 독재 정부 시절 정권의 유지 및 사탕수수 경제의 지속성을 위해 아이티 이주노동 확산됨.

9) 두발리에(Francisco Duvalier)는 의사이자 정치가임. 따라서(삭제) 본인의 애칭이 의사 아버지, Papa (“father”) Doc (“Doctor”)로 불렸으며 그 아들인 두발리에(Jean-Claude Duvalier)는 Baby Doc로 불렸음. 이 부자 독재자는 30년간(1957-1986) 아이티를 통치함.

10) 아이티 부자(Papa Doc, Baby Doc)독재자는 트루히요 도미니카공화국 독재자 그리고 국가설탕위원회와의 사탕수수 이주노동자 인력 협정으로 막대한 이권을 착취하며 집권의 주요 재정적 동력으로 활용함(Ferguson 2003: 11).

아이티 이주노동자 유입 물결	동인	특징
제3차: 1986년 이후	CEA와 사탕수수 사기업	양국별 독재 정부 몰락 이후 중앙정부 및 사기업의 사탕수수 산업의 지속화를 위해 임금이 저렴한 노동자 필요에 의해 지속적으로 유입됨.

출처: Martinez(1999), Baud(2003,2009) 등 기존의 연구물 들을 활용, 저자 작성함

한편, Ferguson(2003)에 따르면, 1980년대부터 밧데이 지역의 아이티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인권 상황이 NGO 기관 및 해외 연구물 등을 통해 인식되었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1983년 밧데이 거주 아이티 이주노동자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의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정권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아울러 조치를 권고했다(ibid). 밧데이 사탕수수 농장 지역 내에서도 위계질서가 존재했다. 농장 내 상층에는 도미니카공화국 주민들이 관리 감독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농장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한 가칭 '비에호스(viejos)'가 있다. 그리고 이 위계질서 가운데 가장 아래에 위치하는 계층은 아이티 현지어로 수확 시기별 합법적 계약 노동자인 '콩고스(Kongos)' 그리고 불법적 이주노동자 '암바필레스(ambafiles)'로 구성되어 있다. 더욱이 아메리카 워치(America Watch) 국제 NGO 단체에 따르면, 아이티 현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가칭 '부스코네스(buscones)'가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아이티 현지인들에게 높은 임금의 거짓 홍보 등으로 이주를 독려하며 종국에는 아이티인들에 의한 아이티 이주노동자 사탕수수 "노예" 산업화에 일조하게 된다(ibid). 아이티 스스로 '유사' 노예제의 재생산과 확산을 도모한 것이다.

아이티 이주노동자 인권의 취약은 독재 정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아이티 이주노동자 인권 취약성에 대한 국제 사회의 '불편한' 여론 속에 트루히요 독재 정부 이후 1986년 등장한 벨라게르(Joaquin Balaguer) 정부는 트루히요 사후 조성된 국가 주도형의 CEA를 통해 사탕수수 산업을 주도하지만 시장 경쟁력의 위축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인권적 측면을 경시하며 노동 효율성 측면만을 고려한 벨라게르 정부는 16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도미니카공화국 거주 아이티 이주민을 강제 추방하기에 이른다(Ferguson 2003:12). 벨라게르 정부와 이념적 대척점에 있는 페르난데스(Leonel Fernandez) 정부가 이후 등장함으로써 CEA 등 사탕수수 산업이 사유화되는 등 산업의 개편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피에레(Sonia Pierre) 도미니카공화국-아이티 여성운동(Dominican-Haitian Women's

Movement, MUDHA) 인권운동가는 아이티 이주노동자의 인권적 취약성이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고발한다.

> [1999년] 사탕수수 산업의 사유화 이래, 375개 밧데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교육 기회가 박탈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사탕수수 농장의 주인들은 노동자들의 아내, 노인 그리고 병든 이들을 가차없이 거리로 내몰았다 [...][11]

이러한 상황은 페르난데스 정부 이후 메히아(Hipolito Mejia)가 차기 정권을 창출함과 동시에 "도미니카공화국 내 극심한 빈곤과 더불어 삶을 영위하기에 가장 취약한 곳이 밧데이 지역임을 확신한다며 이러한 상황을 정부가 인지하는 만큼, 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Ferguson 2003:14). 하지만, 개선됨은 없었다. 워커(Michele Wucker)의 자료를 활용한 퍼거슨(Ferguson, 2003)에 따르면 밧데이 지역의 노동자들은 도미니카공화국군, 경찰 및 사복 경호원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인권 유린을 당했다. 더욱이 사탕수수 농장에 아이티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85% 이상이 근로 중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Ibid). 미주인권위원회(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ACHR)는 밧데이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대신 자신들의 부모님을 돕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는 빈곤의 지속성과 반복성에 기인함으로 구조적 악순환을 양산한다고 지적했다(Ferguson 2003:15; Matibag and Matibag 2011: 95).

한편, 사탕수수 시장의 악화와 맞물리며 1980-1990년대 이후 일련의 정부들은 사탕수수 산업 경제에서 탈피하여 산업의 다각화를 모색했다. 저임금을 활용한 제조업 기반의 수출 주도형 산업화, 비전통 농업 분야의 활성화 및 관광 산업의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도미니카공화국은 산업경제 체질을 변화시키고자 했다. 이와 같은 산업 형태의 변화의 기저에도 아이티 이주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2002년 2월 발행된 도미니카공화국 현지 신문 리스틴 디아리오《Listin Diario》에 따르면 아이티 노동자들은 도미니카공화국 내 벼농사와 마늘 등 농경제 분야에서부터 건축업 등 일련의 모든 산업에 동원이 되었으며 그 임금이 도미니카공화국 국민들 대상 최저 임금의 절반가량에도 못 미쳤다(Ferguson 2003:16). 더욱이 이들 아이티 노동자들의 삶의 근거지는 다름 아닌

11) 출처: Ferguson, James, "Migration in the Caribbean: Haiti, the Dominican Republic and Beyond" *Minority Rights Group International Report*. 2003:13.

바로 (삭제) 사탕수수 농장 내에 집단거주지로 구성된 밧데이다. 즉 사탕수수 산업의 비활성화로 사탕수수 산업 노동자들이 이전만큼 그 수요가 요구되지 않지만, 1920년 전후부터 삶의 터전을 잡은 아이티 이주노동자들의 집단 거주지는 직업의 종류와 그리고(삭제) 그 형태와 상관없이 밧데이인 것이다.

1. 아이티 구별 짓기의 현재 '진행형'과 아이티 이민자 인권의 실태 (상관관계) 삭제

도미니카공화국 태생의 '무국적자(stateless status)'가 양산되고 있다. 아이티 이주자들을 일컫는 말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속지주의(屬地主義)를 원칙으로 한다. 즉 국적과 인종에 상관없이 도미니카공화국에서 태어난 이들은 모두 도미니카공화국 국민의 신분을 자동으로 부여받게 된다. 단 부모님이 외교관 신분 또는 '잠시 머무는 (10일 이내) 상황'(in transit)이 아니라면 모든 출생아들은 도미니카공화국 국민이 된다(Open Society Foundations 2010:3)[12]. Katz(2018)는 이와 같은 속지주의 원칙이 미국의 수정헌법 제14조가 비준되기 3년 전인 1865년에 이미 인권의 중요성과 아울러 국제 사회의 협력의 필요성 등을 인지한 도미니카공화국의 앞선 헌법 구조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그 예외 대상이 있다. 바로 아이티인 이주자들이다.

반아이티주의(Anti-Haitianism)가 도미니카공화국 사회 저변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식이 사탕수수 농장의 확대 양산으로 인력이 필요하게 되어 1920년 이래 아니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아이티인들과 도미니카공화국인들 간의 관계를 긴장의 연속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 앞서 논의한 바, 사탕수수에 기댄 자본주의 시스템하 경제 성장을 구가하던 도미니카공화국 경제 체제가 아이티 위협(Haiti Threat)이라는 정치 슬로건으로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한 트루히요 독재자의 '일탈'과 결을 같이한다. 특히 트루히요 정부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순수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도미니카공화국 내 아이티 이주자를 대상으로 1937년 대학살을 자행하는 가운데 오히려 동유럽 그리고 일본인들의 이주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아이티-도미니카공화국 간의 국경을 더 "하얗게" 하도록 노력했다(Howard 2007; Nunes 2016:4 재인용)

---

12) Ferguson, James, "Migration in the Caribbean: Haiti, the Dominican Republic and Beyond." *Minority Rights Group International Report*. 2003: 22. 참고.

더욱이 트루히요 정부는 히스파니시즘(Hispanicism)을 전면에 내세우며, 자국의 아프리카 유산과 관련한 모든 것을 지우고자 했다. 예를 들어, 1930년대 도미니카공화국 국민 신분증에 명시된 인종 구분에도 '흑인(Black)'이라는 범주를 삭제했다. 다시 말해 '백인(white)' 또는 인디오(아메리 인디오) 인종의 범주만이 신분증에 표기가 된 것이다. 이는 아이티와 다른 아프로-카리브 이민자는 신분증을 구조적으로 받을 수 없게끔 한 것이다 (Martinez 1999:71). 이와 같이 도미니카공화국 사회는 아이티 이주자들을 인종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다름'의 프레임으로 바라봤으며, 그들을 도미니카공화국 내 '사회적 쓰레기(social filth)'로 치부하며 각인시켰다. 트루히요 본인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아이티인들을 도미니카공화국 사회 내 반아이티주의화한 프레임이 지금까지 그 지속성하에 인권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도미니카공화국에 태어난 아이들은 뿌리 깊은 구별 지음으로 인해 가칭 '아출유죄'[13]가 되는 것이다. 아이들은 도미니카공화국이라는 국가에서 태어났지만 부모 세대가 온전한 이민 서류를 갖고 있지 않기에 '국가 없는' 국민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10일[14]이 아닌 10년 혹은 100년 이상의 밧데이를 위시로 하는 도미니카공화국 전역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아이티인들을 'in transit'로 범주화함으로써 여전히 즉(삭제) 잠시 머무는 대상으로 치부하고 있다. 기실 아이티는 속인주의(屬人主義)를 헌법상 원칙으로 하는 바, 부모가 아이티인들이면 자식들도 아이티인들로 규정한다. 하지만, 아이티 정부는 도미니카공화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에 대해 합법적 서류 등을 제공하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다. 도미니카공화국 내 거주하는 '아이티인' 들이 추방되어 본국으로 송환되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Ferguson 2003: 22). 따라서 도미니카공화국에서 태어난 아이티인들은 '아예 없는 자식 취급'을 받는 형국이다.

이와 같은 인종적 차별에 기반을 둔 신분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아이티이주노동자들은 도미니카공화국 사회 계층 가운데 가장 하부에 위치하며 동시에 교육, 고용, 정치적 참여 제약과 아울러 법률적 보호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Open Society Foundations 2010:6). 한편,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도미니카공화국은 아이티 이주 후손들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진행함으

13)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의미를 차용한 것으로 '아'이티 '출'신이면, 유죄라는 뜻임. 즉 인종적이든지 억양이든지 부모가 아이티인으로 의심(유추)되면, 구조적으로 합법적 지위를 구가하기 어려움.

14) 앞에서 설명한 바대로 'in transit' 즉 잠시 머무는 10일을 기준으로 함.

로써 그들 중 일부가 도미니카공화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여지를 마련했다(Open Society Foundations 2010:4). 도미니카공화국 태생의 자녀들을 위해 아이티 출신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여권 등 공식적 문서 또는 피차스(fichas)라는 밧데이 지역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 신분증의 증명서를 제시함으로 도미니카공화국 출생증명서를 획득하는 경우도 있었다(ibid). 이를 확보한 아이티 부모의 도미니카공화국 출신 자녀들은 추후 도미니카공화국 주민등록증(신분증)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도미니카공화국 국민이 누리는 각종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일부 제한적이며 지역마다 그리고 이민 서류를 담당하는 현지 도미니카공화국 직원마다 절차와 방법이 상이하다. 여전히 법제도상의 미비함도 존재하지만 이를 집행하는 도미니카공화국 현지인들이 아이티인들에 대한 인식의 문제에 따른 사회적 간극 또한 극명하게 존재한다. 전술하였듯, 이와 같은 사회적 인식과 제도는 아이티이주자들에 대한 인권결여에서 기인한다. 바꿔 말하면, 어떠한 맥락에서의 (달리 표현하자면, '왜') 對(삭제) 아이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결여가 지속되는지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다층적 인권 결여의 비인간화 상황이 지금도 작동하는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가치 추구인 자유, 평등 그리고 문화가 밧데이를 위시로 하는 도미니카공화국 사탕수수 농장에 거주하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 결여가 된 것인지? 도미니카공화국 내 구조화된 사회성 가운데 아이티인들의 하위주체를 부각시키며 재현의 민주화 가능성을 천착시킬 방안을 '외부적 충격'이 투영된 인권적 프레임을 통해 제시하며 방안을 모색한다.

Ⅴ. '세대' 간 인권적 접근을 통한 라틴아메리카 인권 프레임의 접근과 해결 국면 모색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는 1948년 12월 유엔총회 시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의 제1조항이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제2조항이다. 본고에서 전술

한 바에 비추어 본다면「세계인권선언」제30조항 가운데 모든 조항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이미 제1조항과 제2조항부터 해당되지 않는다. 도미니카공화국 내 밧데이에서 삶을 영위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아이티인들을 대상으로 적용한다면 말이다. 기실(삭제) 노예보다 더 자유가 없는 노동자, 무의식적(무의지) 유사 노예 상태에 관성적으로 일상을 내어 맡기는 이주자 집단이 도미니카공화국 내 아이티인들이다. 프랑스 법학자 바삭(Karel Vasak)[15]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분류하며 인권에 대한 논의의 지평을 확장한 인권의 3가지 측면인 자유, 평등, 문화에 따르면 도미니카공화국의 아이티 이주노동자 대상 인권은 그 어떠한 것도 용인되지 않는다.

인권의 제1요소이자 이른바 제1세대인 '자유'가 철저히 배제되었다. 기실(삭제) 본고에서 서술한 바, 사탕수수 농장 산업의 특성상 집단적 생활과 규율이 강요됨에 따른 가장 '최적화'된 노동자가 아이티인들이었다. 도미니카공화국 현지인에서 영국령 서인도제도 출신의 코콜로스(Cocolos) 그리고 아이티 이주노동자로 사탕수수 농장의 '주요' 노동자가 변화된 가운데 이들에게 천부적으로 부여된 자유는 미군정과 독재 정부 그리고 이후 지배계층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완연히 배제되어 왔다. 조효제(2005)가 이샤이(Micheline Ishay)의 관점을 빌려 지적한 것처럼, 인권 또한 다른 모든 사회 현상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시대와 경험의 산물이다(조효제 옮김 2005: 서문). 따라서「세계인권선언」자체가 '근대' 시대의 산물인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이라는 그 자유주의 전통이, 도미니카공화국에는 '전통'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이와 같은 인권에 대한 '비'전통은 인권의 제2세대인 평등의 관점도 철저히 배제했다. 본고에서 기피력한 바대로 임금과 결부된 경제적 불평등과 더불어 시민권 신청조차 제도적으로 불가함에 따라 가장 기초적인 권리 또한 온전히 그리고 완연히 배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령 밧데이 거주 사탕수수 농장 이주자 자녀들의 교육적 권리의 피력과 이에 따른 기회가 지극히 제한됨에 따른 빈곤의 악순환은 자명한 결과로 치부될 수 있다. 아울러, 보건적 취약성의 완연함 또한 이견이 없다.[16]

자유주의 전통이 강조된 근대화 유산의 특성에 따라 민족적 권리,(삭제) 또는 소수민족의 권리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었다는 한계를 지적한 키밀카(Kymlicka

15) 바삭이 '인권 발전'을 세대(generation)로 구분하며 연대순으로 접근한 것에 대한 비판이 있음. 즉 바삭은 인권의 역사적 발전을 혁명 사이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제시하였지만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의 불충분으로 한계가 제기됨. 더욱이 인권이 연대적·순차적으로 발전하여 그 세대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임(권혜령, 2018: 92).

16) Cohen, Jon (2006), A Sour Taste on the Sugar Plantations. Science. Vol. 313. No. 5786. 참고.

1995)의 관점을 빌리자면(우석균 2010: 56 재인용) 제3세대 인권인 문화적 권리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 다시 말해 도미니카공화국은 근대화의 미명아래 국가주의의 논리로 본국의 국가 발전에 주요 동력으로 '인력'을 제공한 아이티인들에게 아이티 위협론과 반아이티주의 프레임의 문화적 '단두대'를 자행했다. 기실(삭제) 본고에서 전술한 바, 트루히요를 위시로 하는 일련의 독재 및 이에 기생하던 엘리트 집단은 도미니카공화국 국민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아이티인들을 온전히 '저급함'과 동시에 위협 요소로 구별하고 반아이티주의로 구분함으로써 도미니카공화국 자국의 질서와 자국민의 통합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인권 1세대 그리고 인권 2세대도 온전히 준행되지 않는 도미니카공화국의 對(삭제) 아이티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과 정책 속에서 문화 다양성과 문화 민주주의[17]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인권 3세대인 문화적 권리를 찾아볼 수 없음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 기실(삭제) 도미니카공화국은 아이티 이주자를 대상으로 「세계인권선언」의 30조항 가운데 그 어떤 것 하나도 온전히 이행함이 없다.

한편, 3세대 인권이 녹아들어가 있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이 궁극적으로 차이보다는 문화 간 교류에 방점을 둔 상호문화주의를 주요 가치로 천명한 가운데, 김은중(2010: 46)이 피력한 것처럼 "인권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동일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즉 차이를 일률적 가치로 환산하는 척도를 제거하는 것이며,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차이들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2010:46). 이와 같은 차이의 인식에 대한 소통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차이와 다름, 즉 다양성에 대한 인식은 가칭 "외부적 충격" 즉 외부 행위자를 통해 그 인식의 지평이 확장될 수 있다. 실례로, 밧데이 내에서 빈곤과 불평등에 점철된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 아이티인들은 도미니카공화국과 아이티 본국이 아닌 오히려 다른 행위자의 '시선'에 들어왔다. 국내외 NGO 단체들이다. 특히 국내 로컬 단위의 NGO 단체들 가령, 도미니카공화국 - 아이티 여성운동(Dominican-Haitian Women's Movement, MUDHA); 아이티노동자사회문화운동(Movimiento Socio Cultural de los Trabajadores Haitianos, MOSCTHA), 밧데이 거주자 옹호기구(Organización de la Defensa de los Moradores de los Bateyes, ODEMOBA) 등이 국제원조를 활용하여 보건 및 밧데이 내 거주자 대상으로 소규모 자영업 등을 위한 마이크로 파이낸싱을 하는 등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센뜨로 뿌엔떼(Centro Puente), 제넷 서세스 네트워크

17) 문화 다양성은 문화 간 차이에 대한 존중을 강조함; 문화 민주주의는 문화의 생산과 유통과 소비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함(우석균 2010: 58).

(Jeannot Success Network), 그리고 빠스토랄 아이티아나(Pastoral Haitiana) 등 현지 인권 단체들은 밧데이 지역의 실상을 드러내 국제 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Ferguson 2003: 15). 다시 말해, 인권 1세대와 2세대의 가치인 자유와 평등은 3세대에서 주목하는 다양성에 기반을 둔 다원주의성을 통해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처럼 도미니카공화국 내 아이티 이주자들에 대한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전환점을 모색할 여지가 있다.

Ⅵ. 나가며

총체적 난국이다. 도미니카공화국 내 아이티 이주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밧데이 지역의 지속된 빈곤과 불평등성 즉 인권 취약성이 극명하게 그리고 완연하게 확인되었음에도 여전히 아이티 이주자들은 온전한 인권적 보호가 구현되지 않는 곳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사탕수수 농장과 연계한 인력 송출 및 이주가 적어도 100년 이상이 흘렀다. 따라서 아이티 출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수많은 후손들이 이웃국가에 태어났다. 그리고 수많은 '무국적'의 아이티인들은 사탕수수가 마치 감옥의 '창살'과 같은 사탕수수 농장의 집단 거주지인 밧데이에서 100여 년 전과 동일한 악조건 상황에서도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본고에서 전술한 바대로 아이티와 도미니카공화국 간 즉(삭제) 양국 간의 관계 속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는 어렵다. 19세기부터 지금까지 극명하게 내재화된 도미니카공화국 사회의 반아이티주의와 아이티 위협의 프레임은 비단 그들의 문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도미니카공화국 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아이티인들 또한 본국으로의 발걸음이 더욱 망설여진다. 아이티는 1804년 흑인 혁명 성공의 역사성 이외에는 '국가'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아이티 정부가 국가를 통치할 거버넌스가 부재하다. 아이티 영토 내의 자국민들도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도록 국가의 행정력이 발휘가 안 되는 지금, 혹여나 역이민으로 아이티로 귀국하게 될 본국민의 출생증명과 결부된 서류 조차 행정적 지원이 미비하다. 다시금 도미니카공화국 밧데이 출신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고는 먼저 밧데이에 투영된 아이티 이주노동자의 인권적 취약성에서 발현된 다층적 불평등 양상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전술한 바 해결 국

면을 모색하고 자 한다. 본고에서 확인했듯이 국제 사회의 개발 협력을 기반을 둔 적절한 '개입'이다. 국내외 NGO와 연계하여 도미니카공화국의 아이티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반인권적 상태에 대한 국제 여론화함으로써 외교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 더욱이 바이든(Joe Biden) 미 신임 행정부는 유럽의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적 술사'로 천명한 먼로주의(Monroe Doctrine)의 미 제국주의적 접근이 아닌 21세기 인권적 취약성의 극명함이 다층적으로 발현되는 이스파뇰라 섬의 아이티인들에 대해 적극적 해결방안이 정책적으로 담긴 '바이든 주의'를 주문한다. 또한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을 기저로 한 아이티와 도미니카공화국 내 밧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협력을 제시한다. 아마르티야 센(Amartya Sen)이 주장했듯이 개발은 인간의 자유 증진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인간의 자유로움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 - 빈곤, 독재, 경제적·사회적 기회의 박탈, 공공시설의 부족 -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 개발인 것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의 밧데이를 대상으로 먼저 도미니카공화국 국민들에 대한 인권 교육과 더불어 아이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보건과 교육 등 가장 근본적인 협력부터 온전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도미니카공화국 밧데이 지역에서 인권적 취약성이 극명하게 발현되는 현재적 상황에 대해 역사적으로 회귀하며 카이로스적 의미를 되짚어 보았다. 밧데이와 결부된 상황적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 방안의 모색에서 제시한 바를 구현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삭제)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한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갈 수 없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한다. 하지만 여성들은 병원 검진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림자에 숨어서 살아야만 한다" (뉴욕타임스 2005.11.20.). 이처럼 '텍스트화'된 현지인들의 목소리가 전술하였듯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콘텍스트화'하여 밧데이에 투영된 아이티이주노동자들의 일상이 개선되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강경희, "라틴아메리카 여성할당제의 정치적 효과 연구: 멕시코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1권 제1호, 2010.

권혜령, "인권개념의 세대적 접근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 제 56권, 2018.

김달관, "카리브 해에서 인종과 정치의 혼종성: 도미니카공화국과 아이티를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 연구』 제9권 제1호, 2005.
박윤주, “페루 아시아계 이주민의 정치적 성공과 인종 갈등: 후지모리 사례를 중심으로” 『중남미연구』 제30권 제1호, 2011.
백숙희, 임형백, “국제개발협력 정부기관 비교 연구” 『지역개발연구』 제52권 제2호, 2020.
시드니 민츠 지음, 김문호 옮김, 『설탕과 권력』. 서울: 지호, 1998.
심재중, “정치성 담론과 이데올로기-아이티와 마르티니크 흑인 정체성 담론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 연구』제17권 제2호, 2004.
이샤이, 미셸린, 조효제 옮김, 『세계인권사상사』. 서울: 도서출판 길, 2005.
이순주, “여성 정치리더 등장을 통해 본 라틴아메리카 여성정체성의 변화” 『코키토』 제57권 제1호, 2010.
이태혁, “After Hegemony or ‘Still’ Hegemony?: 아이티의 정치경제적 저개발성과 반정부시위”. 『중남미연구』 제39권 제2호, 2020.
임상래, 김은중, 김기현, 우석균, 정혜주, 김영철, 이순주, 곽재성, 『저항, 새로운 연대, 다문화 주의』. 서울: 박종철출판사, 2010.
임상래, “코스타리카의 니카라과 이주자 인권과 제노포비아” 『라틴아메리카 연구』 제18권 제3호, 2005.
_____, “이민과 인권: 칠레의 페루 이민자를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 연구』 제19권 제 4호, 2006.
정상희, “멕시코 도시정책의 젠더주류화 전략분석”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2권 제1호, 2020.
조영현, 김영철, 김희순, 차경미, 『인종과 불평등』. 서울: 알렙, 2020.
조돈문, 임상래, 이내영, 『세계화와 라틴아메리카이주와 이민』. 서울: 오름, 2005.

Baud, M., “Sugar and Unfree Labour: Reflections on Labour Control in the Dominican Republic, 1870-1935.”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Vol. 19(2), 1992, pp.1870-1935.
Cohen, J., “A Sour Taste on the Sugar Plantations.” *Science*. 313(5786), 2006, pp.473-475.
Ferguson, J., *Migration in the Caribbean: Haiti, the Dominican Republic and Beyond.* Minority Rights Group International, 2003.
Hunter M. Keys (eds), “Perceived Discrimination in bateyes of the Dominican Republic: Results from the Everyday Discrimination Scale and Implications for Public Health Programs.” *BMC Public Health*. Vol.19, 2019.
Mintz, S. W., “Can Haiti Change?” *Foreign Affairs*, 73-86.
Martinez, S., “From hidden hand to heavy hand: sugar, the state and migrant labor in

Haiti and the Dominican Republic."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34(1), 1999, pp.57-84.

_____, "The masking of history: popular images of the nation on a Dominican sugar plantation" *New West Indian Guide.* 71(3-4), 1997, pp.227-248.

Matibag, E. and T. Downing-Matibag, "Sovereignty and Social Justice: The "Haitian Problem" in the Dominican Republic." *Caribbean Quarterly.* 57(2). 2011, pp.92-117.

McWade, C. M., Chen, S. C., Ye, F., Heimburger, D. C., Moon, T. D., and S. V. Suiter, "Individual and household influences on food security and dietary diversity in seven Dominican batey communities." *International Health.* 11(4), 2019, pp.272-282.

Nunes, A., "Life in the Dominican Republic's Sugar Fields: Resistance from the Bateyes." *Journal of Pedagogy, Pluralism, and Practice.* 8(1), 2016.

Open Soceity Foundations, *Dominicans of Haitian Descent and the Compromised Right to Nationality*. Open Society Institute, 2010.

Pons, F. M., *History of the Caribbean.* Princeton: Markus Wiener Publishers, 2007.

Sagas, E., *Race and Politics in the Dominican Republic.* Florida: University of Florida, 2000.

Sen, A.,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Wucker, M., *Why the Cocks Fight: Dominicans, Haitians, and the Struggle for Hispaniola.* New York: Hill and Wang, 1999.

웹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웹사이트], Retrieved from https://edu.humanrights.go.kr/academy/eduinfo/worldHnrtList.do,검색일: 2021.01.15.

중앙대학교인권센터 [웹사이트], Retrieved from https://humanrights.cau.ac.kr/human.php?mid=m03_02, 검색일: 2021.01.15.

문화적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협약 [웹사이트], Retrieved from https://www.unesco.or.kr/assets/data/standard/nX8RAXiWRiegQxVZ4svG6VNI3qxGjR_1216479600_1.pdf, 검색일: 2021.01.22.

[눈물의 땅, 밧데이] 올 단기선교지로 추천한다. [웹사이트], Retrieved from https://dckcafe.com/uncategorized/2019-3-16/, 검색일: 2021.01.12.

도미니카공화국 한요한 선교사의 "밧떼이(Batey) 이야기" [웹사이트], Retrieved from https://www.usaamen.net/bbs/board.php?bo_table=data&wr_id=1858&sca=%EC

%84%A0%EA%B5%90&page=16, 검색일: 2021.01.10.

The Origin of the Dominican Batey [Website], Retrieved from https://cotni.org/news/dominican-republic/2007/11/14/origin-dominican-batey, Search: 2021.01.10.

United Nations Trust Fund for Human Security [Website], Retrieved from https://www.un.org/humansecurity/hsprogramme/improving-human-security-in-the-bateyes-of-the-dominican-republic-by-securing-documentation-and-ensuring-that-vulnerable-peoples-basic-needs-are-met/,Search: 2020.12.30.

Glenn Francis Erickson: Bateyes and Haitian Migrant Workers: The Human Rights Issue You've Never Heard Of [Website], Retrieved from https://cmmb.org/bateyes-and-haitian-migrant-workers-the-human-rights-issue-youve-never-heard-of/, Search: 2020.12.30.

What is a Batey? [Website], Retrieved from https://www.thebateyfoundation.org/what-is-a-batey/, Search: 2021.01.10.

Life in a Dominican Batey [Website], Retrieved from https://www.huffpost.com/entry/dominican-bateyes_b_1547082, Search: 2021.01.10.

BATEY RELIEF ALLIANCE (BRA)Non-profit, Non-political, Humanitarian Aid Entity [Website], Retrieved from https://bateyrelief.org/, Search: 2021.01.10.

LIFE IN A BATEY [Website], Retrieved from https://www.makariosinternational.org/life-in-a-batey.html, Search: 2021.01.10.

Dominican Republic Batey Health Initiative [Website], Retrieved from https://www.umassmed.edu/globalassets/family-medicine-and-community-health/fmch-community-health/phc-2019-presentations/dominican-republic-.pdfSearch: 2021.01.10.

Sugarcane industry brings Haitians to the Dominican Republic [Website], Retrieved from https://www.kiva.org/blog/sugarcane-industry-brings-haitians-to-the-dominican-republic, Search: 2021.01.10.

Living Conditions in the Dominican Bateyes [Website], Retrieved from https://ascala2.wordpress.com/2015/08/17/living-conditions-in-the-dominican-bateyes/, Search: 2021.01.11.

MEDICAL CRISIS WITHIN THE DOMINICAN REPUBLIC BATEYES [Website], Retrieved from https://katherinedeluca.wordpress.com/medical-crisis-within-the-dominican-republic-bateyes/, Search: 2021.01.11.

About Batey Libertad [Website], Retrieved from https://yalealumniservicecorps.org/current-trips/2019-service-trip-batey-libertad-dominican-republic/about-batey-libertad, Search: 2021.01.18.

Immigrant Laborers From Haiti Are Paid With Abuse in the Dominican Republic [Website], Retrieved from https://www.nytimes.com/2005/11/20/world/americas/immigrant-laborers-from-haiti-are-paid-with-abuse-in-the.html, Search: 2021.01.11.

달콤한 설탕 뒤에 숨겨진 아프리카의 '눈물' (서평) [웹사이트], Retrieved from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99729, 검색일: 2021.01.11.

문화적 저항과 새로운 연대-민주화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인권 [웹사이트], Retrieved from https://www.krm.or.kr/krmts/search/detailview/research.html?dbGubun=SD&m201_id=10005975, 검색일: 2021.01.11.

문화적 저항과 새로운 연대: 민주화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인권 (결과보고서) [웹사이트], Retrieved from https://www.krm.or.kr/krmts/search/detailview/pdfViewer.html, 검색일: 2021.01.11.

Migration and human rights [Website], Retrieved from https://www.ohchr.org/EN/Issues/Migration/Pages/MigrationAndHumanRightsIndex.aspx, Search: 2021.01.13.

성난 아이티 사탕수수농장 노동자들 [웹사이트], Retrieved from https://www.news1.kr/articles/?1862273, 검색일: 2021.01.13.

권력 개입까지 부른 19c '설탕 전쟁' [웹사이트], Retrieved from https://weekly.donga.com/List/3/all/11/91010/1, 검색일: 2021.01.13.

누런 피부, 하얀 가면: 프란츠 파농을 다시 읽는 이유 [웹사이트], Retrieved from http://www.wk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2628, 검색일: 2021.01.14.

<Abstract>

Batey, the 'island' in the island

- Reviewing the Multi-layered Inequality Patterns caused by the Racial Discrimination of Haitian Migrant Workers in the Dominican Republic and Suggesting Some Thought for Solutions -

Taeheok Lee

HK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multi-layered inequality caused by racial discrimination among Haitian migrant workers in the Dominican Republic. In particular, this paper investigates the human rights embedded inequality of migrant workers through being illuminated on the "Batey," which is a Haiti migrant worker's collective residence in a sugar cane plantation, and subsequently accuses the current situation. In conjunction with the US military regime in the Dominican Republic in the 1920s, the influx of sugar cane migrant workers from Haiti led to a change in the existing labor force. With the advent of Trujillo's dictatorship in the 1930s, the multi-layered inequality arose due to the involuntary Batey residence and human rights discrimination of Haiti migrant workers. It is a necessary evil. The "cheap" workforce of Haitians was the main "labour" power of the sugar cane plantations that underpinned the development of the Dominican Republic. However, this is because Haitians were regarded as targets of threats and hatred in terms of their population composition and their culture. Particularly, the Trujillo government pursued dictatorship in two political frames. It is the new imperialist targeting US capital and the ideological approach of anti-Haitianism by nationalizing the "threat of Haiti." It was the creation and maintenance of the legitimacy of the Trujillo regime and, above all, of Trujillo's own self-interest, faithfully by using the US imperialism perception and Haitian labor-force as leverage or scapegoat. The

post-Trujillo regimes still use anti-Haitianism as a major social mechanism. The issue of immigrants based on Haitians is used as a means of political football to bury the domestic topic or as an explanatory power to explain domestic problems. Despite the decline of the sugar cane industry, the Haitian migrant workers who still spend their daily lives on Batey are clearly exposed to human rights vulnerabilities as they were 100 years ago and even today. Through solidarity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try to find a solution phase.

Key Words : Batey, Haitian Migrant Workers, Racial Discrimination, Human Rights, Solidarity and Development Cooperation

논문접수일 : 2021.03.12.
심사완료일 : 2021.04.21.
게재확정일 : 2021.04.26.